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⑧

◆석공덕정토(釋功德淨土)

위사군이 예배하고 스스로 말했다. “대사께서 법을 설하심은 참으로 부사의 하십니다. 제가 일찍이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 대사께 여쭙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대사께서는 대자대비로 제자를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 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달마 대사께 물기를 ‘집이 한 평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를 하며 공양을 올렸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 대사께서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양무제는 불쾌하게 여겨 마침내 달마 대사를 나라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공덕이 없나니, 사군은 달마 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지니, 양무제가 사된 길에 집착해 바른 법을 모르는 것이니라.”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니, 복을 공덕이라고 하는는 말아야 하며, 공덕은 법신에 있고 복 밖에 있지 않느니라. 자기의 법성(法性)에 공덕이 있나니, 견성(見性)이 곧 공(功)이요, 평등하고 곧음이

면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 쫓기는 것과 같으니라.”

육조 대사께서 말했다. “대중이여, 대중은 정신 차리고 들을지니, 세상 사람들의 자기 색신은 성(誠)이요, 눈·귀·코·혀·몸은 바로 성의 문이니, 밖으로 다섯 문이 있고 안으로 뜻(意)의 문이 있나니, 마음은 바로 땅이요 성품은 바로 왕(王)이니,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떠나면 왕은 없느니라, 성품이 있으므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느니라, 부처는 자기 성품(自性)으로 이뤄지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지니, 자기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니라.”

“선지식들이여, 해능이 도속(隨俗)을 위해 ‘상(相)을 여린 무상상(無相頌)’을 지어 읊터이니 다들 외워 가질지니, 이것을 의지해 수행하면 항상 해능과 더불어 한 곳에 있음과 다름이 없느니라.”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여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같나니 오직 돈교의 법만을 전하여 세간의 사된 가르침을 부수는 도다. 가르침에는 돈(頓)과 점(漸)이 없으나 미혹함과 깨달음에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 만약 돈교(頓教)의 법을 배우면 여러식은 사람도 미혹하지 않느니라. 설법하자면 비록 일만(一萬) 가지이나 모두 합하면 도로 하나로 돌아가나니 번뇌

세간이요 바른 견해는 세간을 벗어남이니 사됨과 바름을 다 물리쳐 버리면 보리의 성품이 완연하리도다. 이는 오직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이며 또한 대승이라 이름 하나니 미혹하면 수많은 세월을 경과하나 깨달으면 찰나의 사이로다.

석공덕정토(釋功德淨土)는 네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덕부분인데 유주상(有住相) 보시는 복덕은 필지언정 무주상(無住相) 보시처럼 공덕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해능 선사는 ‘자기의 법성(法性)에 공덕이 있나니, 견성(見性)이 곧 공(功)이요, 평등하고 곧음이 곧 덕(德)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토극락부분인데 몸으로 십악(十惡)을 짓지 않고 마음으로 팔사(八邪)를 벗어 버리면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정토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능 선사는 ‘만양 생사(生死)를 여린 돈법(頓法)을 깨달으면 서방 극락정토를 찰나에 볼 것이요, 돈교의 큰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 열불을 해도 왕생할 길이 멀어질 것이니 어느 세월에 정토왕생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생 극락인데 부처와 중생이 들어 아닌 하나요, 번뇌와 깨달음이 들어 아닌 하나이듯, 사바예토가 마음만 열리면 극락정토 아님이 없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해능 선사께서 무상상을 길게 들려주시는데 ‘진리 그 자체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사람의 근기에 따라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 돈교의 법을 배우면 여러식은 사람도 미혹하지 않나니, 하나가 여럿이요 여럿이 하나인 이치’라며 ‘사됨과 바름을 다 물리쳐버리면 보리(깨달음)의 성품이 스스로 드러날 것’임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능 스님은 어떤 것이 바른 공덕이며 어떤 것이 서방 극락세계의 바른 인식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악이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열 가지 죄를 말합니다. 첫째가 산목숨을 죽이는 것이요, 둘째가 도둑질이며, 셋째가 사된 음욕이요, 넷째가 망령된 말입니다.

다섯 번째가 속이는 말이요, 여섯 번째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곱 번째가 나쁜 말이요, 여덟 번째가 탐내는 것이며, 아홉 번째가 성질부리는 것이요, 열 번째가 어리석음입니다.

또한 팔사란 여덟 가지 바르지 못한 견해를 말합니다. 첫째가 태어남에 대한 분별이요, 둘째가 죽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셋째가 끊어짐에 대한 분별이요, 넷째가 항상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다섯 번째가 같음에 대한 분별이요, 여섯 번째가 다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일곱 번째가 떠남에 대한 분별이요, 여덟 번째가 만남에 대한 집착입니다.

팔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도의 ‘나가르주나(우수)’가 지은 <중론>에서 부터입니다. <중론(中論)>의 첫 시차에서 판사를 ‘팔불계’라는 이름으로 등장시켜 중도(中道)에 대한 바른 견해를 들고 있습니다. 나가르주나의 팔불계(八不備)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 김필현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항상 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不生亦不滅 不常亦不斷 不一亦不異 不來亦不出

몸과 마음으로 십악과 팔사를 여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서방의 극락세계요,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자신이 곧 아미타불임을 거듭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몇 차례 강조했지만 불교는 수직이 아닌 수평의 종교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들어 아닌 하나이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불제자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함부> 경전에서 사르나트의 첫 설법 시 교진여 등의 오비구가 깨달음을 이뤘을 때에도 나 외에 다섯 부처라는 표현은 만날 수 없습니다. 나와 더불어 다섯 부처라는 평등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경전과 율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부처님은 당시 매월 보름날 밤에 치러졌던 자자법회(自恣法會)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중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 대중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벼운 언동은 없었는지 진지하고 겸손하게 대중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열반경>과 <아함경>에는 부처님이 구시나가에서 열반에 드실 때 아란에게 병들고 쇠약해진 자신을 위해 길상초를 깔아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부처가 아난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을 유추해 볼 때, 몸이 쇠약해지기 전까지는 직접 자신이 길상초를 깔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보아, 부처는 누군가에 자신의 수발을 들도록 강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기경전인 <아함부>와 율장에서는 부처와 그의 제자들이 평등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느 한 쪽은 우월하고 어느 한 쪽은 열등할 수 없는 것이 불교만의 자랑이자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문경전을 한글로 옮기는데 있어 이 평등 관계는 여러 곳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와 조사는 지존이었으며, 제자와 중생인 우리는 높은 말로 아랫것을 인종해 왔던 것입니다. 중국어에는 구조적으로 높임말과 하등말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번역자들은 한글 같이 부처와 조사는 하등말을, 제자와 중생들은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언어를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깊게 관조해 초기불교 정신을 되살리는데 부끄러움과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84@buddhapia.com

자기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니라

곧 덕(德)이 아니라, 안으로 불성(佛性)을 보고 밖으로는 공경할지니, 만약 사람들을 경멸하고 아상(我相)을 끊지 못하면 곧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허망해 법신에 공덕이 없느니라.”

위사군이 예배하고 또 물었다. “제자가 보오니 스님과 도사들과 속인들이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서쪽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랍니다. 청하온데 대사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에 날 수가 있습니까? 바라건대 의심을 풀어 주소서.”

“사군은 들을지니, 해능이 말하여 주리라. 세존께서 사위국에 계시면서 서방정토로 인도해 교화하는 말씀을 하셨느니라. 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기서 멀지 않다’고 했나니, 다만 낮은 근기의 사람을 위해 멀다 하고,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지혜가 높은 사람 때문이니라. 사람에는 자연히 두 가지가 있나니 법은 그렇지 않나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달라서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을 뿐이니라. 미혹한 사람은 열불하여 저 곳에 나려고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느니라. 마음에 깨끗하지 않음이 없으면 서방정토(西方淨土)가 여기서 멀지 않고, 마음에 깨끗하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 열불해 왕생하고자 하여도 이르기 어려우니라. 십악(十惡)을 제거하면 바로 십만 리를 가고 팔사(八邪)가 없으면 바로 팔천 리를 지난 것이니, 다만 곧은 마음을 해하

의 어둠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사됨은 번뇌를 인연하여 오고 바름이 오면 번뇌는 없어지나니 사됨과 바름 모두 여의면 오직 깨끗한 마음을 뿐이로다. 보리는 본래 깨끗하나 마음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망상이라 깨끗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나니 오로지 바르지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애는 도다.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으려 하면 일체 모두가 방해롭지 않나니 항상 자기 허물 드러내 일체 하면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는 도다. 형상이 있는 것에는 본디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道)를 찾는 데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니 도리어 스스로 고뇌만 하는도다. 만약 애써 도를 찾고자 한다면 행동의 바름이 바로 도(道)이니 스스로에게 바른 마음 없으면 어둠 속 길이라 도를 보지 못하리라.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 보지 않나니 만약 세간의 잘못 보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니 도리어 허물이로다. 남의 잘못은 나의 허물이요 나의 잘못은 스스로 죄지음이니 오직 스스로 잘못된 생각 버리고 번뇌를 물리쳐 부수는도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나니 글들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할지니 바로 보리가 나타남이로다. 법은 원래 세간에 있으며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나니 세간 일을 떠나지 말며 밖에서 출세간(出世間)의 법을 구하지 말라. 사된 견해가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중진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 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대한불교일월출 추명사)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 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